

## “너는 일깨어 있으라!”

요한계시록 3:1-13

요절: 3:2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데와 빌라델비아, 두 도시의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교회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사데 교회는 위대하게 보이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을 평가할 때, 겉모양을 넘어 그 이면을 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데 교회에게는 꾸짖기만 하셨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하셨습니다. 사데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리스도는 그들을 “죽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은 작았지만, 그리스도는 그들이 살아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와 같이 되고 싶습니까? 대부분이 “빌라델비아”라고 대답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본받을 수 있는지 찾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사데 교회로부터 경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유념하여 듣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방향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죽은 교회 사데(1-6). 사데는 두아디라 남서쪽에서 약 48 km 떨어진 부요한 상업도시로, 보석과 염색, 섬유 산업으로 유명하였습니다. 그곳은 리디아 왕국을 가로질러 동서로 뻗은 중요한 무역로였습니다. 그곳은 고지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천연요새였습니다. 그곳은 난공불락의 군사적 요충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경계병이 경계를 늦추고 있을 때, 외국의 침략으로 두 번이나 패했습니다(546 B.C., 214 B.C.). 그곳은 A.D. 17 년에 지진으로 황폐하게 되었을 때, 티베리우스 황제의 넉넉한 지원으로 재건되어 다시 번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황제숭배가 활발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데 교회는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의 열매였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출신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2 세기 후반에 주교로 섬겼던 변증론자인 멜리토였습니다.

1a 절은 말합니다.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일곱 영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사 11:2).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손에는 성령을, 다른 한 손에는 교회의 사자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두 손을 함께 모으실 때, 성령의 능력이 교회의 사자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 그들로 하여금 능력으로 섬기게 합니다. 이는 생명이 없는 사데 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이 듣고자 한다면 이 교회를 충분히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1b). 사람들의 눈에 그 교회는 생동감 있고 살아 있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아마도 많은 신자들이

모이고, 그 도시와 다른 여러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큰 교회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충분한 재정과, 재능 있는 인적 자원도 많았을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이나 박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 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와! 근사한 교회네!”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 교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오히려 건강하고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막 11:13). 이 교회의 명성은 기만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외모를 넘어 그 내면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죽은 자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어떤 것을 위대하다고 평가할 때, 이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삼상 16:7).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고 우리의 동기를 아십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10 절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너는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 말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엡 2:1; 골 2:13). 그들의 몸은 여전히 살아 있지만,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전체 교회에 적용하셨습니다. 죄는 이 교회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생명이 없는 영적 시체가 되게 하였습니다. 2b 절에서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온전하지 못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not”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 은 “네 행위가 나의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음을 알았다(I find that your actions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my God)”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교회는 40 년도 안 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데 교회가 그렇게 빨리 죽어버렸을까요? 아마도 교회의 리더들, 즉 목사와 장로와 교사들이 죄와 타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협할 때 죄가 교회를 죽였습니다. 사데 교회는 여전히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모임에서 대화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헌금도 드렸고, 길고 생명이 없는 기도를 하였고, 구제 사업도 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회개 없이 성경을 공부했고, 습관적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기도를 했으며, 스피릿이 없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교회가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위선자가 되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마 15:8).

우리는 4 절에서 죄가 어떻게 교회를 장악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몇몇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는 교회의 대다수의 교인들이 자기 옷을 더럽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더럽혔다”는 말은 “불결하게 하다” 또는 “얼룩지게 하다”라는 뜻인데, 불결한 것이 거룩한 것을 오염시킬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종종

성경에서 각종 성적 부도덕과 우상숭배로 인해 사람들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을 화나게 할 때 사용됩니다. 버가모와 두아디라의 경우처럼, 사데 교인들은 불경건한 문화와 타협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박해받을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들이 진리 위에 서고 경건한 삶을 산다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을 화나게 하여 생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타협은 죄가 교회를 지배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은 주변의 세속적인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문화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네가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그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또한 타협하는 삶을 숨김으로 위선적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기 쉽습니다. 이는 별로 심각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교회를 영적 죽음으로 이끕니다. 한 예수회 사제는 영적 죽음에 대한 네 가지 현상에 대해 말했습니다<sup>1</sup>. 첫번째 현상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굴복하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열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공허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고통 앞에서 돌처럼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 없습니다. 고난 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없습니다. 세 번째 현상은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뭔가 더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은데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현상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주저함이 없이 죄를 짓고, 후회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영적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죽음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을까요?

사데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시기 위해 다섯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일깨어 있으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 명령들은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입니다. “일깨어 있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절실하고도 생명을 주는 호소입니다.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상태를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깨울 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외부에서 말해 줄 강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깨워 있으라!” “그 남은 바를 굳게 하라”는 것은 아직도 살아 있는 경건한 남은 자들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위대하거나 재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신실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약하고 어리지만 순수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그들이 강하고 성숙하게 되어 그들 스스로 설 수 있기까지 양육해야 합니다.

다윗이 정치범으로 쫓겨 도망다녔을 때,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빛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는데 400 명 가량 되었습니다(삼상 22:2). 이들은 다윗에게 얼마나 짐이

<sup>1</sup> <https://aleteia.org/2019/04/10/4-signs-you-might-be-spiritually-dead/>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용사들도 아니었고, 부자나 학자나 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노숙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을 경멸하고 쫓아내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이해하고 돌보았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한 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후에 그들은 용사들이 되었고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에게 행하셨던 것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했고, 많은 약점을 지닌 멸시받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훈련하심으로, 결국에 그들은 사도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회를 부흥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실하지만 별 특징이 없는 몇 사람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대한 착각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일깨워 남은 자를 굳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입니다. “생각하라 (Remember)”는 것은 어떤 것을 기억함으로써 이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막 8:18-19).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시련의 때에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교리로 이루어진 한 세트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5 절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당신은 복음이 어떻게 당신에게 이르렀는지 기억하십니까?

한 경건한 여자가 자녀들 문제로 씨름해 왔습니다. 그녀는 정말 헌신적이었지만, 마귀는 그녀를 나쁜 엄마라고 끊임없이 고소했습니다. 그녀는 정죄와 죄의식에 빠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자유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끊임없이 기억할 때,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한 후에는 이를 굳게 지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굳게 지킨다는 것은 묵상하거나 암송하거나 글로 쓰거나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를 신실하게 감당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삶의 양식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죄의 본성과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문화와 싸울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깨워 있는 자들은 앞으로 닥칠 재난을 내다보고 피할 수 있으며, 구원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깨워 있지 못할 때, 재난이 갑자기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3b).

예수님의 말씀은 사데의 멸망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데 시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한번은 페르시아 군대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성벽의 한 경계병이 투구를 잃어 버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찾기 위해 숨겨진 비밀 통로를 따라 가파른 경사지를 내려갔습니다. 경계를 서고 있던 적군이 그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그 도시로 가는 비밀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과신했던 경계병은 자기 임무를 게을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적군들이 벽을 기어 올라와 도시로 들어왔고 갑자기 예기치 않게 그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이는 또한 안티오쿠스 3세의 공격 때도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갑작스럽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4-5 절에서, 그리스도는 사데 교회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데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부르셨지만, 믿음을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은혜가 넘치는 교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로서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19:7-9). 그들은 자신들의 공로 때문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둘째로,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입니다(5b). 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입니까! 그리스도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6).

**둘째**, 열린 문 빌라델비아 교회(7-13).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몇몇 교회들을 칭찬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따라야 할 좋은 본이 됩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형제애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도시는 몇 개의 중요한 무역로를 따라 사데 남동쪽 약 45 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시는 리디아와 프리지아 지역에 그리스 문화와 언어를 전파하기 위한 기지로 설계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포도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비옥한 계곡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비문을 보면 제우스와 헤스티아와 로마 황제 숭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곳은 화산 활동이 있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고대 역사가인 스트라보는 빌라델비아를 “지진이 많은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A.D. 17년에 사데를 황폐화시켰던 같은 지진이 빌라델비아도 거의 파괴하였습니다. 서마나 처럼 그곳은 유대인들이 많았고 회당이 있었습니다.

7 절에서 그리스도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라고 드러내셨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특유한 속성입니다. “거룩하신 이”라는 칭호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지는 메시아적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요 6:69). “진실”하다는 것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며, 믿을만하고 참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로서 진정한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가리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하십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 22:22 절에서 왔습니다. 엘리야김은 왕의 청지기로 임명되어 왕국의 모든 보고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김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집과 영적 보고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권한을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이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8a). 신약에서 “열린 문”이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기회를 가리킵니다(행 14:27; 고전 16:9). 그리스도는 이미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볼지어다”라는 말은 그들이 눈을 들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을 포함하여 빌라델비아 사람들을 복음화하기 위해 그들 앞서 일하고 계심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이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이 작은 능력, 즉 숫자에서 소수이고 가난하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질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8b).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문화적 기준과는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라는 엄청난 압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자 기꺼이 고난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그들은 사데 교회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순수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부패한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빛나는 진주와 같았고, 거대하고 어두운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과 같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소수일지라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는 그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심지어 사탄의 도구였던 불신 유대인들조차도 변화시키는 영적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9). 유대인들은 혈통에 근거하여 자기들이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거짓말장자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힘 있는 증언을 통해 유대인의 마음을 열어 회개하도록 하였고,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그 앞에 절하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진정한 이스라엘로 사랑하셨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10 절은 그리스도께서 인내로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또 다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는 혹독한 시련의 때에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시련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전 세계가 겪을 최후의 시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역적으로 로마의

박해를 통한 임박한 시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는 교회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어 휴거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지거나, 교회가 세상에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점은 그리스도께서 시련의 때에 자기 백성을 보호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에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요 17:15).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는 고난과 시련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이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심으로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니”(11)고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계시록에서 다섯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2:16; 3:11; 22:7, 12,20). 그리스도는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큰 기대와 확신을 가질 때,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고, 시련의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복음을 굳게 붙들고 성령을 좇아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구절은, 믿는 자가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영생을 받았으며, 단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12 절에서 그리스도는 승리한 자들에게 더욱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 축복은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거기에서 기둥이 된다는 것은, 지진으로 인해 파괴된 우상의 사원의 기둥과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하며, 영원히 안전한 장소가 됩니다. 둘째 축복은 세 가지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곧 교회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둥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들은 영원히 거기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영원히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라델비아는 “가이사라의 새로운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네오시이저(Neocaesarea)”라는 새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안전한 도시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시민권을 갖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축복된 지위입니다. 이 축복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굳게 붙들고 성령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고난은 짧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롬 8:18).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13). 그리스도는 곧 오십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리스도는 가정에, 캠퍼스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굳게 붙들고, 성령을 좇아 행하며,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